



# 나날이 어린이 신문

## 오토바이를 훔쳤지만 풀려난 중학생



얼마 전 경기도 양주시에서 누군가 오토바이를 훔쳐 간 일이 있었어요. 경찰이 범인을 잡고 보니 13살 중학생이었어요. 경찰은 학생을 그냥 풀어줬어요.

풀어준 이유는 학생이 너무 어리기 때문이에요. 우리나라는 **범죄**를 저지른 사람을 미성년자와 성인으로 나눠서 처벌해요. 만 19살보다 어리면 미성년자고, 19살부터는 성인이죠. 범죄자는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벌을 받는데, 미성년자는 아예 벌을 주지 않거나 벌 대신 '보호처분'이라는 것을 내려요. 봉사활동을 한다거나, 교육을 받는다거나, 병원에서 치료받는다거나, **소년원**이라는 곳에 들어가 생활하는 거죠.

미성년자를 봐주는 이유는, 아직 어려서 사회의 법과 규칙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. 다시 잘 가르치면 잘못을 반성하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. 만약 어려서부터 **처벌**을 받아 '범죄자'로 찍힐 경우,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.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처벌보다는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 거죠.

미성년자 중에서도 0~9살은 '형사미성년자'라고 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은 물론이고 보호처분도 내리지 않아요. 그보다 나이가 많은 만 10~13살은 '촉법소년'이라고 하는데, 처벌은 안 내리고 보호처분을 내려요. 즉 13살까지는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. 14~18살은 큰 잘못은 처벌을, 작은 잘못은 보호처분을 내려요.

최근 촉법소년 나이를 한 살 낮춰서 12살까지만 봐주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. 촉법소년들이 '어차피 나 벌 안 받아.'라고 생각해서 나쁜 짓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처벌을 해서 막자는 거예요. 또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예전보다 점점 더 심해져서 벌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어요.

하지만 반대하는 주장도 많아요. 다른 나라에서 어린 나이부터 처벌을 해봤더니, 아이들의 범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예요. 효과도 없이 처벌하는 것보다는, 아이들이 죄를 짓지 않게 미리 더 잘 돌보고 가르치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에요.

문해력 쏙 

## 오늘의 단어

**범죄**

법을 어기고 죄를 저지르는 것.

**소년원**

법적으로 죄를 지은 미성년자를 따로 보호하면서 바르게 교육시키는 시설.  
성인은 큰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지만, 미성년자는 소년원에 가요.

**처벌**

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나 특정 기관이 벌을 줌.

독해력 쏙 

##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?

- ① 0~9살은 형사미성년자, 10~13살은 촉법소년이라고 한다.
- ②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.
- ③ 14~18살은 어떤 범죄든 처벌을 받지 않는다.
- ④ 미성년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.

독해력 쏙 

## 사람들이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

- ① 아이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
- ②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
- ③ 모든 아이들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
- ④ 보호처분이 너무 많아서

표현력 쏙 

어린이가 죄를 지었을 때 감옥에 보내는 것과 잘 타일러서 가르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나요? 이유도 적어보세요.